

8·15특사, 이번엔 성사?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제325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2061.52	(+30.35)
코스닥	749.46	(+18.74)
금리(국고채 3년)	1.8	(−0.01)
환율(원·달러)	1128.50	(−1.60)



여자골프만 같아라

전인지, 韓·美·日 싹쓸이

21세의 약관 전인지(왼쪽 사진)가 올해 한미일 골프 무대를 석권했다.

전인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289야드)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오픈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양희영(26)을 1타차로 제치고 처음 출전한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올 시즌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차례로 승전고를 울리며 월드스타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인지는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그해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승수를 추가하며 국내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그는 올 시즌 KLPGA 투어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 이미 삼천리투게더오픈,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3승을 수확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했다. 이어 두달여 만에 미국으로 건너가 US여자오픈을 제패, 올 시즌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국민연금 삼성편 맞아?

'언론플레이' 논란에 대차거래 변수 등장
의결권 일부 제한땐 삼성만 곤혹스러워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17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어정쩡한 자세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찬성의견을 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연금은 이 사실을 언론에만 슬쩍 흘리고 공식 입장은 여전히 '노코멘트'다. SK-SK C&C합병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온전하게 삼성물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 11.21%를 갖고 있는 회사 최대 주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얻기 위해 삼성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고스란히 의결권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차거래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 상환을 약정하는 거래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SK 합병건에서 주주총회 전에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시장의 판단과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실제 의결권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확정 기준일인 6월 11일 현재 삼성물산의 대차거래 잔고주수는 792만1301주다. 이는 삼성물산 보통주(1억5621만7764주)의 5.07% 규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차 거래했을 경우 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예탁원 관계자는 "의결권 같은 법적권리는 소유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입자에게 생기다"며 "의결권 행사 전 대여자가 민감한 상황인 경우 상환요청을 해서 상환될 경우 행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한 주식에 대해 국민연금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대차거래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2년 97억원, 2013년 60억원, 2014년 110억원 등을 주식대여 수수료로 챙겼다. 국민연금이 소유한 삼성물산 주식 일부도 대차거래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개별 기업에 대한 대차거래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이 일부 제한될 경우 가장 당혹스러운 쪽은 삼성이다. 삼성은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30.99%를 우호지분으로 계산하는 모습이다. 주주총회 참석률 70% 가정 시 삼성은 47%의 찬성 지분이 필요하다.

주주총회가 임박하면서 삼성물산은 우군 모으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 주라도 위임하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자세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싸움은 더 힘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SK와 SK C&C의 합병 때는 총수 지분이 높은 SK C&C에 유리하게 합병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주총 전에 공개했다. 국민연금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서도 왜 다른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일 논란이 뜨겁다. 당일 주총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공적기금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 때도 사안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발표하더니 이제와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합병 찬반에 대한 소상한 의견을 제시해야하는데 언론에 슬쩍 흘린 후 '간을 보는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한줄 News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면방침을 공식화했다.

▲ 한국거래소는 13일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관련해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하나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노조와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저장조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이모(46)씨, 환경 관련 부서 팀장 안모(47)씨 등 원청업체인 한화케미칼 관계자 7명을 포함해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를 열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 금융감독원은 13일 자투리 펀드(소규모 펀드)를 대폭 줄이고, 펀드 판매회사 이동을 쉽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최근 우리 해경이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인계 절차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북측에 13일 촉구했다.

▲ 전경련은 내수 진작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회원사들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밀수출과 환치기로 2조4천억원대 불법 외환 외환거래를 일삼던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제조·수출업자, 환치기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도널드 터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13일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 원전반대그룹이 13일 새로 개설한 트위터를 통해 '원전반대B그룹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한울원전 원자로헤드검사결과와 국방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 등을 공개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폴 싱어 회장이 붉은악마 복장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상반기 해외법인장 회의에서 "판매 일선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판매지원 체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1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의 상반기 전국 경매지수(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전체)에 따르면 경매진행건수는 8만346건, 낙찰건수는 3만686건으로 2001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타결

그리스 '가혹한 개혁'에 합의
'독일 대 프랑스'… 유럽 균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구제금융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는 험난했던 협상 끝에 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그리스 국민의 삶은 더욱 혹독해질 전망이다.

브뤼셀에 모인 유로존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이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도달 사실을 알리면서 '합의'라는 의미의 영단어 'agreement'를 대신해 'aGreekmen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톡톡 튀는 표현과는 달리 그리스가 치를 대가는 혹독하다는 평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스가 받을 3차구제금융은 860억 유로(약 108조원) 규모다. 그리스는 막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그리스 자체 개혁안보다 더 혹독한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 합의문에는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500억 유로(약 63조원)규모의 국유자산을 독립적 펀드로 설정하고 이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EU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대립했다. 잠재된 갈등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다.

그리스의 편에 섰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했다면 우리 문명의 중심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 대해서는 "용감한 선택을 했다. 그는 다른 개혁을 요구했으나 800억 유로를 얻으려면 이것(타협)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사라졌다면서도 3차구제금융이 최종 결론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리스가 채권단의 요구대로 개혁정책을 이행해야 구제금융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독일은 한시적 그렉시트를 주장하며 그리스에 대한 강경 여론을 주도했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을 지지하며 프랑스·이탈리아 등 온건파와 갈등을 빚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누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가 추가 개혁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에 합의한 13일(현지 시간) 아테네의 한 은행 밖에서 연금생활자들이 연금을 찾기 위해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멕시코 마약왕 탈옥 소식에 "내가 말했잖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미국내 히스패닉계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마약왕의 탈옥 소식에 반색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멕시코 마약왕 탈옥 소식을 전하는 CNN보도와 함께 "멕시코 최대의 마약왕이 탈옥했다. 믿을 수 없는 부패이고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내가 말한 대로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게시글에는 "마약왕의 탈옥으로 트럼프의 말이 입증됐다… 트럼프, (멕시코와의 국경에) 벽을 세워달라"와 같은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열성적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트럼프의 막말이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내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공화당을 반히스패닉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공화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열심이다.

공화당 1인자로 평가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전날 CBS 방송에 출연해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위치들에 있다. 다른 주자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같은 날 CNN 방송에 출연해 "만일 공화당이 트럼프의 시각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이다.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 이라거나 마약거래상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을 친구이자 이웃으로, 또 친척으로 둔 히스패닉 사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화당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 같은 주장 외에도 자신만이 히스패닉 문제에 대해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실려 있다.

/송병형 기자

재계 사면요구 4일 뒤에 "8·15특사 단행"

박 대통령 '범위와 대상 검토' 지시
재계, 대기업 총수 포함여부 촉각

재계가 기업인 사면을 요구한 지 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은 당연지사다. 옥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기대해서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특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설명절 특사 때처럼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특사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사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 국민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사장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한 재계 소식통은 "최소한 최 회장의 특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등이다. 이 중 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복절특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명절 특사와 달리 민생 생계형 사범으로 못박지 않아 대기업 총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로서는 최장기 수감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이제 1년 6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 두고 있다. SK그룹은 의사결정권자의 장기 부재로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특사를 원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7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어린 관측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라는 목소리가 많다.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원칙 때문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당장 박 대통령의 특사 발언 직후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강조해 왔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재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의중을 떠나서 기업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에 넘겨야"

박영선, 삼성합병 찬성에 일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향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산하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삼성이 주장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언론이 인정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1대 0.35로 결정된 합병 비율에 대해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나 매출규모로 볼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으며 의결권 자문시장 세계 1, 2위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합병 반대를 권고한데 이어 국내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조차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되어 있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유사 사안인 SK 합병건과의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삼성물산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 포장하여 애국심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전 세계의 투자자와 한국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연금은 원칙과 법령·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김무성 "여야 함께 공천권 버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토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김 대표는 "1년 전 저는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당원이 주인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중요한 요인도 바로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적인 공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정치권이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며 "공천 혁신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야당에 재차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정원 기자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안' 한고비 넘겨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혁신안은 격론 끝에 1차 관문은 통과했으나 계파 간 간극이 커 최종 결정기구인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안은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졌다"며 "20일 중앙위에서도 혁신안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원들이 흔쾌히 (혁신안에) 동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선거개입’ 원세훈, 16일 상고심

법정 구속 5개월 만



오는 16일 대법원에서 진행될 상고심 선고에 따라 원세훈(사진)전 국정원장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은 대법원 3부 민일영 대법관이 맡게 됐다. 민 대법관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장이던 당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첫 판결을 한 장본인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열린 항소심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대리할 예정이다. /이홍원 기자

검찰–박범훈, 증인 놓고 대치

<중앙대 특혜 비리>

“불필요한 증인 vs 상관 인식 확인”



‘중앙대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67·사진)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이라며 불허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교육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교육부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었다”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측 변호인까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전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회유 등 사실이 포착됐고 이것이 주된 구속 사유로 평가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또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난 3일 박 전 수석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중국 팸투어 단체 환영행사 1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한국 방문 승객 환영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국발 항공 수요의 회복을 위해 이날 중국 팸투어 단체 환영행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정교해지는 ATM 카드복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카드복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범죄조직까지 국내 원정을 오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이달 초 검거했다고 13일 밝힌 외국인 카드복제범들의 수법은 전에 비해 교묘해졌다. 이들은 미리 한국에서 독일제 ATM이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정교하게 만든 스키머를 부착했다. 몰래 카메라도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기기 안쪽에 설치했다. 카드복제는 ATM 카드 투입구 앞에 일명 ‘스키머’라고 불리는 카드복제기를 부착해 다른 이용자의 카드에 있는 마그네틱 정보를 읽어들여 수집하는 수법이 흔히 쓰여왔다. 이런 수법은 영국 등 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있었고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이 같은 카드복제 행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단계 진화된 수법이 동원되면서 피해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피해자도 “카드를 넣을 때 다소 빡빡한 느낌은 있었지만, 카드정보를 빼간다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복제카드로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이 마련한 대책을 비켜가기도 했다. 이들이 현금을 빼낸 지난달 22~23일은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의 ATM 거래가 막힌 이후였지만,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사용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앞서 5~6월에도 국내 은행 ATM에서 수집한 정보로 복제 카드를 만들어 대만에서 현금을 빼내간 사건이 있었다.

금융당국 등은 이용자들에게 ATM 카드 투입구를 잘 살피고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린 채 입력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는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로는 ATM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복제기를 부탁하기 어렵게 투입구를 교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점검도 계속하고 있다”며 “센서를 부착해 누군가 ATM 앞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 역시 근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전국 ATM을 모두 손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분식회계 혐의 강덕수, 법원에 보석 요청

<전 STX그룹 회장>

檢 “받아들일 이유 없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심문에서 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황에서 여러 증거 자료 파악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 받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회장은 “1년 3개월간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그룹 회장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보석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증거조사 절차도 종결된 것이 아닌데 보석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하고,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홍원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232만명 최저임금 미달… '솜방망이' 처벌 원인

시급5580원 이하 근로자 전체의 12.4% '사상최대'

위반 사업장 처벌은 0.3% 노동계 "강력 제재 필요"

올해 정부고시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하지만 232만 6000명의 노동자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이원보, 소장 노광표)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00년 최저임금제를 조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상 최대수준이다.

13일 김유선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있으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전체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실제는 노동부에서 검찰로 이첩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검찰에 올라가도 소액에 불과해 법원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011년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균 88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벌금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김유선 위원의 발표 자료인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경제성장에 겨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역대 최고수준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통계를 사용하면 최저임금 비율의 추이를 알 수 있다"면서 "201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월정액급여(39.5%)>월통상임금(32.6%)>시간당 정액 급여(30.7%)>시간당 통상임금(25.3%)' 순으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와 2014년 현재의 최저임금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다. OECD 34개 국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26개국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8개국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모두 임금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따라서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26위다.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9 달러로 한국(4.4달러)보다 2.5 달러 높았다.

한편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에서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4%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였다. 55세 이상도 28.5%에 달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4.4%)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집중적인 피해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의견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기다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약 없는' 日 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기다렸고, 일본 정부는 기약이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조정 두 번째 기일인 13일, 이날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거부로 조정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기일에도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일본 정부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기일 참석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 측은 1, 2차 기일 모두 우리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길원옥 할머니에게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손배소 2차 조정도 일본 측 거부로 또다시 불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인 김강원(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판사는 일본 정부 측이 출석 여부는 물론 조정 서류조차 반송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들어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 조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할머니 측은 3차 조정을 이어갈지 고심 중이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8·15 기념 담화의 성격과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변화의 통로를 열어두고 3차 조정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3차 조정은 다음달 아베 총리 담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고려해 추정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획기적인 해결안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에 함께한 안 소장은 일본 정부의 서류 반송과 관련, "(위안부 관련) 문제 자체를 거부하고 특히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 측은) 조정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할머니 측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정치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서류 송달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앞서 나눔의집은 2013년 8월11일 이용녀 할머니 사망 이후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조정을 신청, 절차 문제로 미뤄지다 지난달 15일 첫 기일이 잡혔지만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배춘희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가 숨을 거두면서 12명이었던 생존 조정 신청인은 1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 측은 2013년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조정 절차를 수행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영장실질심사 포기

'탈세·회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대신 변호인을 통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은 진행해야 한다"며 박 회장 측에게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예상대로 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홍원 기자 hong@



공항 도착한 범어사 칠성도 지난 6월 스위스 취리히 경매에서 금정총림 범어사(梵魚寺)가 매입한 칠성도(七星圖)가 13일 영종도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청사를 통해 돌아왔다. 범어사 칠성도는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선종(善宗)이라는 화승의 주도로 1861년 밀양 표충사에서 만들어진 뒤 범어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던 조선 후기 불화다. /연합뉴스

하나·외환銀 통합 합의 '메가뱅크' 탄생

노사갈등 1년 만에 종결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
이르면 9월 중 합병 완료
자산 290조 '넘버1' 부상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왼쪽 세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 강래석 외환은행 노조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기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직본부장(왼쪽 첫 번째), 김병호 하나은행 은행장(왼쪽 일곱 번째),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김명란 하나은행 노조 부위원장(왼쪽 여덟 번째), 김재영 하나금융지주 상무 (왼쪽 아홉 번째) 가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등은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고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번 합의는 김정태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 노력을 통해 성사됐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하나·외환 통합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와 협의과정을 거쳐 7월 13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정부는 그동안 하나·외환 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 왔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위는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통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법적 요건을 따져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후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받게 된다.

본인가는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본인가 완료 후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앞서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9월 1일로 잡았으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하나금융은 10월 1일까지 통합법인 출범을 완료할 방침이다.

통합은행의 상호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된다.

또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해 운영키로 했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 아래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과 복리후생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분리교섭권도 인정한다.

이밖에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외환 노조는 "각종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국면을 지속해 온데 이어 지난 주말을 전후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결과 ▲통합법인 출범 10월1일까지 ▲통합은행 상호 '외환' 또는 'KEB' 포함 ▲대등합병 원칙 ▲고용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 유지와 분리교섭권 인정 ▲로즈텔러 6급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 ▲9·3 총회 참석직원 징계철회 등 쟁점사항에 합의하면서 통합관련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누적된 불신을 씻고 합의에 이른 데 따라 철저한 합의이행과 통합은행 발전과 직원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외환은행이 합쳐지면 자산규모(2015년 3월 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 말 기준) 1조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현지법인 통합과 카드 통합(하나카드 출범)에 이어 은행 간 통합도 마무리됨에 따라 24개국 12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양행의 강점 공유를 통한 시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점포망과 양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은 더욱 증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비전 아래 전략목표인 2025년 글로벌 40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나트륨·열량 덩어리' 햄버거세트

컨슈머리서치, 빅3 업체 조사
버거킹 더블치즈 와퍼 '최고'



KFC '징거더블다운맥스'와 롯데리아 '후리브샌드'

시중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세트 메뉴 대부분이 과도한 열량과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의 인기 햄버거 세트 메뉴 30개의 열량은 최소 763㎉에서 최고 1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ｇ 기준 흰쌀밥 한공기(250㎉)의 3~6배 수준이다.

햄버거 세트메뉴는 햄버거에 콜라·사이다 등 음료, 감자튀김 등으로 구성된다.

열량이 가장 높은 햄버거 세트는 버거킹의 더블 치즈와퍼로 무려 1515㎉였다. 다음으로 버거킹 더블 와퍼(1437㎉), 버거킹 베이컨치즈와퍼(1283㎉), 버거킹 베이컨치즈 갈릭스테이크(1229㎉), 버거킹 치즈 와퍼(1219㎉), 맥도날드 더블 1955(1201㎉) 등의 순이다.

브랜드 별로 햄버거세트 평균 열량을 보면 버거킹이 1197.3㎉로 최고였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각각 948.2㎉, 897.6㎉로 뒤를 이었다.

이들 햄버거 세트 메뉴에는 나트륨도 무려 892~20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거킹 베이컨치즈갈릭스테이크(1865㎎), 버거킹 베이컨치즈와퍼(1709㎎), 버거킹 베이컨치즈갈릭스테이크(1638㎎), 버거킹 치즈와퍼(1628㎎), 롯데리아 한우불고기(1612㎎) 등의 순으로 나트륨 함량이 많았다. 브랜드별 평균치를 보면 버거킹 1478㎎, 맥도날드 1208.4㎎, 롯데리아 1159.5㎎ 등의 순이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버거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부득이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면 각 매장에 비치돼 있는 성분 정보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삼성, 갤럭시S6 시리즈로 패션업계 관심 집중

ITS서 '갤럭시 어워드' 열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 시리즈가 패션쇼 무대에서 또다시 주목받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시리즈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출시 후 다양한 패션 행사에 제품을 소개하며 꾸준히 업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에는 갤럭시S6 시리즈로부터 영감 받은 작품 공모전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진행된 글로벌 패션 공모전 ITS에서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로부터 영감 받은 예술 작품에 '삼성 갤럭시 어워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ITS는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경연대회로, 최종 결선 진출자 10명이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의 디자인과 기능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미래'라는 주제에 부합하고 제품의 기능을 잘 표현한 중국 디자이너 왕 양(Wang Yang)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으며 1만 유로의 상금이 수여됐다.



삼성 갤럭시 어워드에서 우승한 디자이너 왕 양(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수상 디자이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ITS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 갤럭시 어워드'를 시행해, 신진 디자이너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나아가 패션과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패션계의 중요 동력인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패션과 기술이 조화돼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S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국내는 물론 패션의 고장 프랑스 파리와 북미 등에서 패션쇼와 스마트폰 출시 행사를 연계한 행사를 진행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INCE 1933
하이트진로
hite와 전인지 선수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전인지 선수, 2015 US여자오픈 우승
US여자오픈 감격의 우승 순간을 다시 경험하세요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일정 : 2015. 7. 23(목) – 7. 26(일) 장소 : 블루헤런GC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하나투어, 면세사업자 선정 수혜로 주가 '쑥쑥'

| 마켓인사이트 |

SM면세점의 지분 77% 보유… 성장 잠재력 확대

SM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최대주주인 '하나투어'의 주가도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투어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54% 오른 1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하나투어, 토니모리, 로만손 등의 컨소시엄)이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나투어는 중소·중견부분 SM면세점의 지분 77%를 보유한 대주주다. SM면세점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투어 본사에서 내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5년, 1회 갱신시 총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증권가에서는 "하나투어가 SM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최적의 조합인 '여행+호텔+면세점'을 완성하게 됐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16만2000원→18만5000원)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16만5000원→20만원), IBK투자증권(16만원→18만6000원), KB투자증권(14만2000원→18만원), LIG투자증권(15만원→17만원) 등이 줄줄이 최대주주인 하나투어의 목표주가를 높여 잡았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동화면세점의 영업면적당 매출액에서 20%를 할인한 가격을 적용해 SM면세점이 영업면적(㎡)당 매출액 4800만원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때 정상 매출규모는 4789억원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오는 2018년 정상 매출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1위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 이점에 더해 중국 비자발급센터와 국내 비즈니스 호텔 등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여행업 체인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들과 협력관계도 구축해 면세점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도 "SM면세점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 호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SM면세점 조감도'. /연합뉴스

권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매출액 4조3000억원, 총 매장면적 1만3000평, 평당 매출액 3억2000만원을 기록했다"면서 "롯데 소공동점과 신라 장충점을 제외한 평당 매출액은 1억5000만원이며 SM면세점의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는 롯데 잠실점의 1억4000억원을 적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2분기 메르스 영향이 크지 않았고 3분기 최성수기에 진입해 본업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시내면세점까지 더해졌다"며 "하나투어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SM면세점의 예상 순이익은 283억원, 총기업가치는 7077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하나투어 지분율 76.8%를 감안할 때 하나투어에 귀속되는 면세점 가치는 5435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내년부터 영업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증권 마감시황



'그리스發 호재' 코스피, 2060선 회복

코스닥도 750선 다가서

코스피지수가 그리스의 타협안 도출 소식에 1%대 강세로 마감했다.

시장 안정화 정책에 큰 폭 상승한 중국 증시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35포인트(1.49%) 오른 206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0.10% 오른 2033.25로 출발한 코스피는 그리스의 타협안 도출 소식과 중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2060선을 돌파했다. 기관 홀로 104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75억원, 59억원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비금속광물(5.68%), 증권(4.76%), 종이목재(4.27%), 건설업(4.01%) 등이 크게 올랐다. 통신업, 운수장비, 전기전자, 유통업은 보합권을 형성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오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4.19%), 신한지주(3.83%), 제일모직(2.53%)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생명 등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73%), 현대모비스(-0.77), LG화학(-2.32%) 등은 약세였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중국과 그리스 호재에 전날보다 18.74포인트(2.56%) 오른 749.46를 기록하며 750선에 바짝 다가섰다.

개인이 671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억원, 514억원어치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종이목재(7.83%), 기타제조(5.28%), 비금속(4.58%), 금융(4.23%), 건설(4.02%) 등이 크게 올랐다. 방송서비스 만이 0.62% 하락했다.

시총 상위종목은 등락이 갈렸다.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동서,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이 3%대 상승한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키이스트는 3%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90원(0.08%) 오른 1130.60원을 기록했다. /김보배 기자

현대산업도 '장밋빛' 전망 예고

HDC면세점 선정 '최대수혜주'

현대산업개발이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따라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면세 운영능력과 현대산업의 복합개발 능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 목표주가를 올려 잡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대비 2800원(3.99%) 내린 6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전일보다 12.39% 오른 7만8900원까지 치솟으며 전날 신고가를 넘보기도 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HDC신라 사업권 현대산업에 '날개'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10일 입지, 매장규모, 주변 부지와의 상생전략, 관광산업 육성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5년간 면세사업 특허를 부여 받은 HDC신라면세점은 오는 2020년까지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다 특허만료 후 재입찰을 통해 사업지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HDC신라면세점 지분은 호텔신라 50%, 현대산업 25%, 현대아이파크몰 25%로 구성돼있다. 이중 현대산업은 현대아이파크몰 지분을 81.5% 보유 중이다.

HDC신라의 영업면적은 2만7400㎡다. 이번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10072㎡), 하나투어(9978㎡)는 물론, 서울시내 기존사업자중 가장 넓은 롯데 26,516㎡(서울기준) 보다도 크다.

◆ 2017 순이익 최고 25% 상승 예상

증권가에선 현대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최고의 성장주로 거듭났다고 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HDC신라면세점이 2016년 매출액 1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9%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중 현대산업이 400억원의 순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2017년에는 매출액 1조5000억원,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예상하며 현대산업의 순이익 기여는 570억원"이라고 관측했다.

박상연 신한금투 연구원은 "현대산업의 면세점 사업 실적을 반영한 순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2016년 12.1%, 2017년 14.8%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8만1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현대산업개발 제공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 "현대산업은 주택부문에서 이미 가파른 이익성장이 시작된 가운데 면세점이라는 고성장·고마진 사업이 추가돼 최고의 성장주중 하나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도 변동성 높은 주택사업 위주에서 면세사업으로 다변화하면서 회사 전체의 사업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의 목표주가를 7만9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선정 정보 유출의혹 조사"

한국거래소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관련, 사전 정보 유출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HDC신라면세점과 함께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당시 시장에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이날 오전부터 치솟더니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 때문에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도 이날 8.94%의 급등세로 마감했다. 같은 날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탈락한 신세계는 8.97% 급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보가 어떤 경로로 흘렀는지 시장의 추측성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인지 아직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매매 행태상 미공개 정책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별도 설립에 노조 '반발'

은행연합회 산하 사단법인 설립안 의결
노조 "정부 꼼수… 통추위 의결은 무효"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에 별도 설립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산하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 안을 의결했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를 말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내년 3월 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이하 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통합집중기관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별도 산하기관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개정 신용정보법 부대의견과 지난달 17일 국회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꼼수에 의한 통추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신용정보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에 개정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법인을 신설할 경우 또 다른 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17 국회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한화생명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김연배 부회장, 차남규 사장과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단장, 해외법인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 "전사적 혁신 가속화 추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생명은 세계 초일류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연수원에서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김연배 부회장, 차남규 사장과 임원, 지역본부장, 지역단장, 해외법인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생명은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을 구축하고 비용경쟁력을 확보해 세전이익 7000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전략수립을 논의했다. 또한 본사 임원진과 영업현장의 기관장은 하반기 영업 성공전략을 수립하며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화생명은 그동안 지속해 온 체질 개선 노력의 결실로 올해 상반기 전자청약률을 40% 달성하며 지난해 말(15%)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보고·결재 등의 의사결정 구조를 신속하고 간결화해 고정비를 1000억원 이상 절감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프린터 출력량도 150만장 줄여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목표 달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하반기에도 전사적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계약가치 중심 규모 성장, 투자대변화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비용구조 효율화와 지속적 비용 절감, 해외·신사업 성장 기반 확대를 4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영업 부문에서 VIP고객 마케팅 강화, FP 역량별 차별화된 교육, 新 재무설계 컨설팅 TOOL 도입, 모바일 활동 지원 등을 도입해 FP 고능률화를 추진한다. 자산운용부문에서도 해외 자산 비중과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고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자산운용전략을 통해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비효율 비용요소를 개선하며 기존 해외 진출 법인들의 안정화와 핀테크,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나선다.

김연배 부회장은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전사적 변화와 혁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효율화, 보험과 금융의 융합 등과 같이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오늘 모인 각 부문의 리더들은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비조치의견서' 대상, 구두지침까지 확대

금융당국 "공문도 포함"

금융당국이 금융개혁활성화를 위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구두지침까지 확대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라는 카드사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해도 되느냐'고 건의하면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모두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요청대상은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늘어난다.

'공문 등'은 행정지도와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요청대상은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또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아란 기자

자투리땅 어디든, 이동식별장 '하라반' 눈길

여가문화 확산으로 소형 이동식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컨테이너를 대신할 조립식 스마트하우스 '하라반'이 화제다.

하라반은 간소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일반 주택보다 40~50%의 비용 절감효과도 가능하다.

가정집처럼 싱크대, 배수구, 전기, 샤워시설도 들어가 주말농장이나 논·밭 근처 계곡, 임야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 조립식 주택으로 설치에는 2~3시간, 해체에는 1시간이 소요돼 공사장에서 임시사무실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능 스마트하우스다.

3층 구조판넬, 알루미늄 빔, CR 강판, 주춧돌을 사용해 튼튼하고 견고하다.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식 주택이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설치하면 되고, 소형(3~4인용), 중형(5~6인용), 대형(7~8인용) 세 가지 사이즈가 있다.



토지가 없는 수요자를 위해 홍천과 제천에서 토지와 하라반을 함께 판매한다. 하라반을 설치한 150평 대지는 4950만원, 250평 대지는 6990만원이다. 문의: 1833-5110

/박선옥 기자 pso9820@

NH농협銀 "SK D&D 상장, 성공적 마무리"

NH농협은행은 13일 PE단이 투자한 SK D&D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PE단은 지난 2012년 SG인베스트먼트와 'NH-SG2호 PEF'를 통해 SK D&D에 297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고 부동산개발회사의 상장도 전례가 없었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 상장도 적극 조력했다고 농협은행 측은 설명했다.

당초 농협은행은 상환우선주에 투자했는데 그 중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 SK D&D 상장 직전에 구주매출로 처분하면서 큰 수익을 거뒀다.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상황이다.

농협은행 측은 "잔여 보유 주식의 회수 가격에 따라 전체적인 IRR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SK D&D의 주가 추이를 볼 때 큰 이익을 거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SK D&D의 상장은 부동산개발회사인 디벨로퍼 기업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주가는 상장 첫 날인 지난달 23일 공모가보다 2.6배나 오르기도 했다. 공모가 2만6000원이었던 주가는 상승을 거듭하여 7월 10일 현재 6만7700원에 이른다.

/백아란 기자

맹모도 부러워할 '영어 특화' 아파트 봇물

<孟母>

조기유학 대응 방안으로 어학원·영어마을 조성 등 단지 내 교육시설 강화 "우선적 고려 효과 기대"

#GS건설은 경기도 평택 동삭2지구에서 '자이 더 익스프레스' 아파트를 공급하기에 앞서 지난 9일 SDA삼육어학원과 MOU를 맺었다. 단지 상가에 어학원을 입점 시키고, 입주민에게 수강 우선 등록권과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GS건설은 먼저 분양한 김포한강센트럴자이와 오산시티자이에도 삼육어학원을 유치해 분양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을 특화한 아파트가 잇달아 등장해 눈길을 끈다. 30~40대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자녀 교육이라는 점을 반영, 건설사들이 단지 내 교육시설 강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자녀 조기유학에 대한 대안으로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학생 1만 명당 유학생 수는 ▲초등학교 63명 ▲중학교 63.1명 ▲고등학교 42.8명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초등학교 45.8명 ▲중학교 36.7명 ▲고등학교 18.7명에 그쳤다. 자녀들의 부적응, 가족 간 불화 등이 감소 이유로 꼽혔다.

조기유학을 떠나는 자녀들이 줄면서 국내에서 현지 수준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됐고, 오랜 기간 불황에 시달린 건설업계가 이 기회를 바꿨다.

영어교육 특화에 가장 대표적인 곳은 GS건설이다. SDA삼육어학원과 벌써 세 번째 협약을 맺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특별공급에 들어가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단지 내 SDA삼육어학원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입주민 등록시 2년간 강좌마다 20%를 할인해준다. 또 3년간 우선적으로 수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시설 자이안센터에 영어도서관을 조성, 1년간 영어리딩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반도건설이 이달 초 경기도 화성 송산신도시에서 선보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역시 글로벌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춰 어린 자녀들과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교육기관 YBM과 연계해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9일 GS건설 자이더익스프레스와 SDA 삼육어학원이 MOU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서해종합건설이 공급한 '서해그랑블'은 외국어체험관을 계획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966여㎡ 규모다. 1층에는 구립 어린이집, 2~4층에는 외국어 체험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설로 건립된다. 외국어 체험관은 과천시 영어마을을 모델로 한다.

이밖에 동양건설산업도 서울 성북구 돈암동 '길음역 동양파라곤' 단지 내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단순히 영어교육이 특화된 단지라고 해서 분양을 받거나 이사를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지역에 아파트를 얻는 사람이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효과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metroseoul.co.kr



NH농협생명, '현장과 하나되는 일촌맺기' 캠페인 진행 김용복 NH농협생명 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세종시 농협보험교육원에서 '현장과 하나되는 일촌맺기' 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과 하나되는 일촌맺기'는 본부부서와 FC지점이 1대 1 협약을 통해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보다 효과적인 영업지원과 본사직원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NH농협생명 제공

'찾아가는 CEO 특강'으로 영업현장 소통나서

신성호 IBK證사장, 직원 대상 영업 노하우 공유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13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신 사장은 WM서초센터를 포함한 수도권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CEO 특강'을 시작했다.

신 사장은 이번 특강에서 환율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고객 상담 시 주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 범위를 넓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사장은 "과거 지점장 시절 경험을 돌아볼 때 고객은 손실 자체보다 담당 직원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시 하더라"며 "직원



개개인이 실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력은 각자의 노력으로 쌓는 것이지만 회사도 '공부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WM부문 실적이 흑자를 달성한 것은 모두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신 사장은 이어 "직장 초년 시절 스승과 같은 상사들을 만난 것이 지금까지 큰 자산이 되고 있다"며 "나를 직장 상사가 아니라 같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선배로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M서초센터 한 PB는 "회사 교육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교육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 솔직히 놀랐다"며 "적당한 긴장감도 생기고 고객 응대에도 한층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했다.

신 대표는 취임 이후 CEO와 함께하는 특강, 직급별 학점이수제, 부서별 자체학습 '러닝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시흥 배곧신도시, 이달 첫 입주 시작

분양가 웃돈 최고 3000만원

인구 5만여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 시흥 배곧 도시개발지구가 이달 첫 입주에 들어간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분양한 '호반베르디움1차' 1414가구와 'SK뷰' 1442가구가 이달 중순과 말 연이어 집들이를 시작한다. 앞으로 2018년까지 입주할 아파트가 더 많긴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신도시의 모양새가 갖춰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곧신도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490만7148㎡ 규모로 조성 중인 택지지구다. 입주가 마무리되는 2018년이면 2만1541가구, 5만6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친환경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지구 내 글로벌 교육과 의료산학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배곧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850만~900만원이다. 차량 5~10분 거리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분양가 1200만~1300만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송도국제도시는 배곧신도시보다 규모가 3배 이상 크고 도시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 분양가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최초 분양가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흥 배곧신도시 전체 조감도.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용면적 65㎡ 소형은 1000만~2000만원, 84㎡ 중형이 15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제 계약을 할 때는 500만~1000만원가량 가격이 조정되긴 하지만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는 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배곧신도시는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중심부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가 집약된 첨단의료서비스 구역으로 활용하려는 것. 2018년 개교가 목표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수인선 달월역이 인접했지만 도보 이용은 어렵다. 대신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배곧신도시~서해안 해안도로 확충이 계획돼 있다. 시흥시는 오이도역과 사업지구 일대를 연계한 버스전용차로를 신설, 대중교통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참여연대 "국민연금 의결권 내부절차 무시"

"삼성 3대 세습 용인은 국민에 대한 도전"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 입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을 번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민연금의 삼성 3대 세습 찬성 의결 방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재벌 3대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삼성의 수족으로 전락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결권 행사지침'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합병 비율도 잘못 선정된 합병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지침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거의 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은 자칫 이번 합병안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지난 SK와 SK C&C의 합병안 경우처럼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 내부 절차조차 무시하고 변칙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같은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했다. 이들 단체는 "합병안 찬성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과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은 삼성의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연금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합병안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여름맞이 이벤트 실시 LG전자는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LG 포터블 스피커 여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LG유플러스의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 중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LG 포터블 스피커를 증정한다. /LG전자 제공

정몽구 회장 "판매서 돌파구 찾아야"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회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양사는 1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주재로 상반기 해외법인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지역별 실적 및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하반기 생산·판매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 회장은 회의석상에서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시장 침체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과 힘겨운 시장상황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양사 해외법인장들을 독려했다.

정 회장은 "외부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지만 모두 이겨내 온 경험이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어려움을 외부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또 "시장이 어려울수록 판매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판매 일선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판매지원체제를 강화하라"며 "지금은 내부의 강한 결속력이 중요한 때인 만큼 전 임직원이 단합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미래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시도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LG전자, 차세대 방송 규격 송수신 성공

LG전자가 차세대 방송 규격 기술 ATSC 3.0을 이용해 실험방송을 송수신하는데 성공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미국 방송사 트리뷴과 방송장비업체 게이츠에어와 공동으로 ATSC 3.0 기술 기반의 실험방송 송수신을 공개 시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시연에서 LG전자는 6MHz 대역폭의 지상파 채널 하나로 울트라HD 방송과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을 끊김 없이 수신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ATSC 3.0은 시속 250km로 이동하는 중에도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실험방송의 시연 환경은 향후 ATSC 3.0의 표준을 정하는 미국의 ATSC가 실시할 공식 실험방송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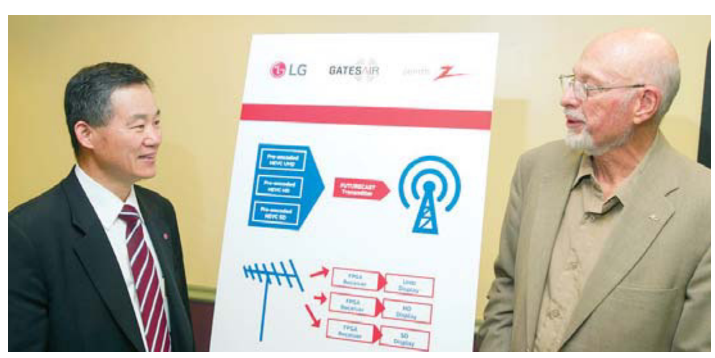
LG전자는 지난해 북미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 NAB(National Association Broadcasters Show)에서 세계 최초로 ATSC 3.0 송수신 기술을 시연한 데 이어 이번 실험방송 성공으로 차세대 방송 규격 기술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게 됐다.

ATSC 3.0은 차세대 영상압축 기술인 HEVC와 효율적인 주파수 운영을 통해 울트라HD 영상을 송수신할 수 있다.

ATSC 3.0을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방송 시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투수와 타자를 보여주는 방송 대신에 수비 장면이나 응원단 모습 등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에 초점을 맞춘 방송을 선택할 수 있다.

LG전자는 한국과 북미의 디지털 방송 전송 규격(VSB, Vestigial Side Band)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ATSC 3.0 표준화 활동을 적극 펼쳐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화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가 9일(현지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미국 방송사 트리뷴(Tribune)과 방송장비업체 게이츠에어(GatesAir)와 공동으로 ATSC 3.0 기술 기반의 실험방송 송수신을 공개 시연했다. LG전자 CTO부문 제니스연구소장 김종규 전무와 제니스연구소 웨인 러플로(Wayne Luplow) 상무가 ATSC 3.0 개념도를 설명하고 있다.

‘페이전쟁’ 삼성보다 포털이 한수 위

네이버·다음카카오, 온라인·모바일서비스 기반 탄탄해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포털·IT제조사·유통사 등이 업종을 불문하고 서비스를 출시 하고 있다. 현재 페이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이다. 빅3 중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 특성상 오프라인·단말기 기반의 삼성페이보다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기반이 탄탄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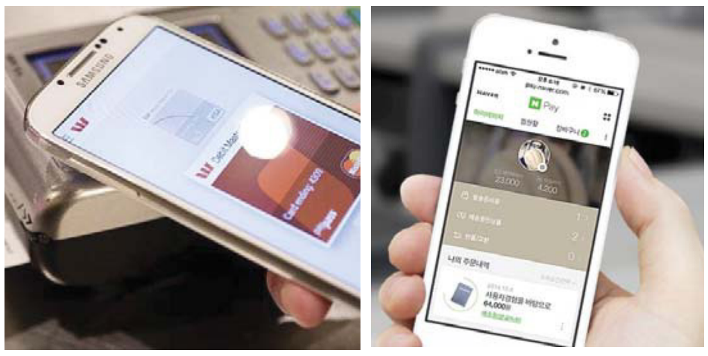
13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선보일 예정인 삼성페이는 결국 범용성을 가진 단말기로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주도하려는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자사의 단말기에 근거리 무선통신(NFC)에 더해 마그네틱 보안전송기술(MST)을 적용해 기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로는 이용 할 수 없고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S6 이상의 단말기로만 이용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삼성페이의 범용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갤럭시 S6의 판매부진은 물론 국내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지난 2011년 2598만대를 정점으로 매년 200만대씩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휴대폰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이용자들은 일정 비율을 넘어서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강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1위 검색 점유율 보유한 네이버와 모바일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경쟁력은 간편결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삼성페이 서비스(왼쪽)와 네이버페이 서비스 시연 사진.

것이라는 것이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라인 간편결제에서는 온라인 사용자 기반이 확고한 포털 기업이 유리하다”며 “모바일의 경우 컬러 앱과 연동돼 사용자 기반이 확고하고 쿠폰이나 이모티콘 등 소비자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포털 회사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강점을 가졌다”고 내다봤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만 사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통신사나 단말기,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은 범용성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가입자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4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사용자 20%가량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역시 기존 온라인 포털 이용자라면 쉽게 서비스에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모바일’ 이용자가 하루 평균 약 2400만명이고 그중 61%가 자동 로그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하루 약 1500만명의 네이버 회원들이 로그인 없이 간편 결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 방법도 최초 결제 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와 계좌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된다.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쇼핑 시장도 포털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인기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조89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6% 늘었다. 또한 모바일과 인터넷 쇼핑을 합한 전체 거래액은 한해 전보다 19% 증가한 4조2380억원을 기록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12일 한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글로벌 경영전략회의에서 지역별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만도, 올 10조2000억 수주… 5조3000억 매출 낙관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인 만도(대표이사 성일모)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도는 상반기 실적이 낮고 하반기 실적이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으로 매출이 회복돼 올해 목표 5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만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기흥 한라그룹인재개발원에서 글로벌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예상했다.

신규수주는 상반기에 7조원을 확보해 올해 목표치 10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매출 9조원, 영업이익률 7% 이상을 실현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의 입지를 확고히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토요타, 여름철 안전운전 ‘12가지 무상점검’

유상서비스 15% 공임 할인

한국토요타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2015 토요타 스마트 여름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토요타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 점검항목인 엔진오일과 냉각수, 타이어 상태·공기압, 브레이크 계통 등 기본 12항목을 무상점검한다.



토요타 프리우스V.

또 4가지 유상 서비스에 대한 15% 할인(공임·부품) 혜택도 있다. 해당 항목은 12V 배터리, 와이퍼 러버,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필터다.

원하는 고객에 한해 차량 살균 소독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이달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2년 또는 주행거리 2만5000km 범위 내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출고 시 장착된 것과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해 준다.

특히 3개월 또는 주행거리 1000km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반대편 타이어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번 2015 토요타 스마트 여름 캠페인과 스마트 서비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13일 인천 부평동 힘찬병원에서 저소득가정 관절 환자의 무료수술 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식을 체결했다.

재단은 첫 수혜자인 김혜성(56)씨의 좌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일체를 지원했다. 협약식에는 한주호 한국지엠 대외정책본부 부사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 이수찬 상원의료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마음재단은 2005년 설립 이후 치과, 내과, 안과 등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인천에 위치한 시카고치과, 한길안과, 나은병원 등과 상호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1352명에게 수술비와 의료비 7억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2800가구의 건강보험료 1억6200만원을 대납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받게 했다고 재단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출품작 접수

9월 14~18일까지

아우디 코리아는 디자인 공모전인 ‘2015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의 출품작을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는 음악, 모션 그래픽, 제품, 가구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아우디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팀으로 참가할 경우 팀당 2명의 인원 제한이 있다.

총 상금 1억원 이상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1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 4명(팀)씩 총 16명(팀)을 선발한다. 이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시킨 디자인으로 2차 심사를 해 부문별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최종 우승자 4명(팀)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원과 트로피가, 나머지 12명(팀)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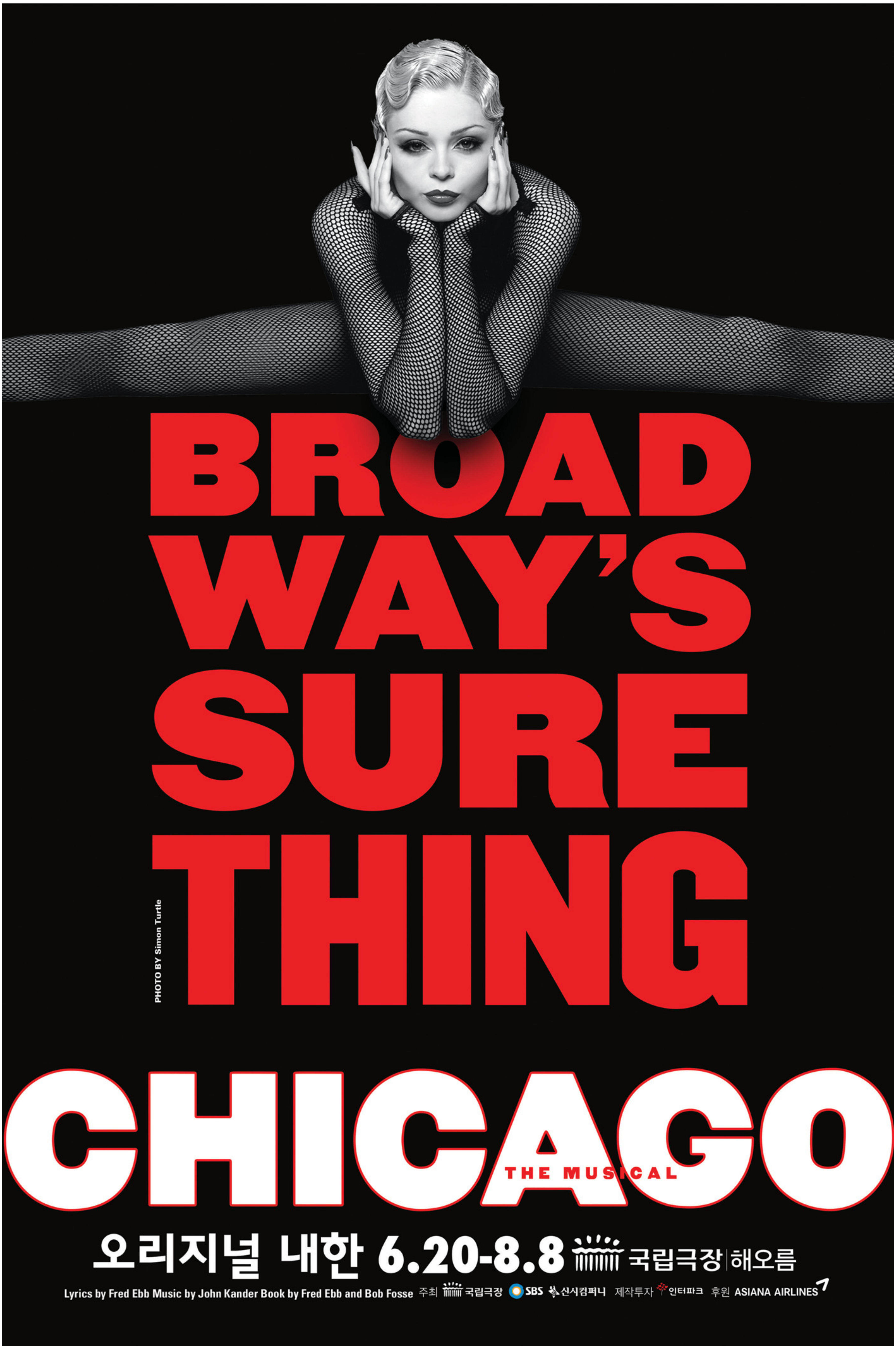
또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전시회’에서 수상작을 전시해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 부문은 브랜드 감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음악 작품을 1~3분 길이로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모션 그래픽 부문은 5분 이내 길이로 아우디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표현한 영상 작품이다.

제품 부문은 아우디 자동차의 내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하되 즉시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정용기 기자


BROADWAY'S SURE THING
PHOTO BY Simon Turtle
CHICAGO
THE MUSICAL
오리지널 내한 6.20-8.8 국립극장|해오름
Lyrics by Fred Ebb Music by John Kander Book by Fred Ebb and Bob Fosse 주최 국립극장 SBS 신시컴퍼니 제작투자 인터파크 후원 ASIANA AIRLINES

SKT·KT·LGU+ '신기술·상생' 보여준다

'MWC 상하이 2015' 15일 개막

최첨단 ICT기술 뽐내 전세계 300여기업 참가



MWC 상하이 2015에 참가하는 '브라보! 리스타트' 3기 임직원들이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다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KT 직원들이 MWC 상하이 2015 개막을 앞두고 참여 기업과 관람객을 위해 행사장에 설치한 기가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KT 제공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에서 앞선 기술력과 상생 협력을 보여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상하이 2015'에서 기가 LTE, 스마트홈 플랫폼, LTE 기반 음성통화(VoLTE)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를 내놨다. 이에 덧붙여 SK텔레콤은 사내 협력 스타트업과 동행해 상생 협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MWC 상하이는 2012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다. 작년에는 95개국, 3만여명이 넘는 글로벌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무한 모바일(Mobile Unlimited)'이란 주제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주요 ICT 기업 약 300개가 참가한다.

◆ SKT '스마트 라이프' 선도할 차세대 플랫폼 선뵈

SK텔레콤은 '언팩 더 스마트 라이프'(Unpack the Smart Life)를 주제로 다양한 미래형 플랫폼을 전시한다. 관람객이 직접 스마트홈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쇼핑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의 환경과 기호에 맞춰진 라이프웨어 등이다.

행사에서 최진성 SK텔레콤 CTO는 GSMA 산하 기술조직인 PSMC, GSMA 컨퍼런스에서 앞선 5G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5G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SK텔레콤 경영진의 글로벌 행보 가속화와 선도적인 네트워크 기술력 전파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 출신 기업 3개사가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스타트업은 반디통신기술, 제이디사운드, 마그나랩 등 3곳으로 스마트홈·미디어 분야의 창업기업이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들의 전시회 참가 기회를 대폭 늘리고, 이들에게 SK텔레콤내 부스를 제공함은 물론 전시 부스 설치 관련 일체의 비용과 항공권·숙박료·행사 입장권 등 행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이들 벤처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 전시 부스를 찾은 고객들 위한 다양한 체험존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올인원 휴대용 디제잉 기기인 '몬스터 고 DJ' 생산업체인 제이디사운드는 SK텔레콤 부스안에서 디제잉 공연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체험존을 운영한다. 마그나랩은 모바일 비디오 제작에 최적화된 비디오 제작도구를 들고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반디통신기술은 스마트홈 RF 점등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SK텔레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등 스위치를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 KT, MWC 상하이 행사장서 통신 인프라 구축

KT는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5G 선행 기술을 GSMA 측에 제공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KT가 구현할 기가토피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KT는 올해 행사장에 유무선을 아우르는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가와이파이와 지능형 와이파이 컨트롤러(WiMS)를 비롯해 기가 LTE, 기가와이어를 구축했다.

기가와이파이 솔루션은 기존 와이파이 대비 3배 이상 빠른 최대 1.3Gbps 속도를 구현하는 기가와이파이 AP와 지능형 와이파이 컨트롤러로 구성돼 사용자들이 밀집된 환경에서도 속도 저하 없는 품질을 제공한다. 기가 LTE는 최고 1.17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이종망 융합 기술이고 기가 와이어는 최대 600Mbps의 기가급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전화선 기반 인터넷 전송 기술이다.

◆ LG유플러스, VoLTE 연동 노하우 알려

LG유플러스는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VoLTE의 성공경험 세션'에서 통신사간 VoLTE 연동 경험을 전 세계 VoLTE 서비스를 준비중인 글로벌 통신사업자·장비업체 관계자와 공유한다.

지난 2012년 이동통신 3사가 시작한 VoLTE 서비스는 통신사 간 연동이 안 됐지만 2012년 말 고품질 통화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신사 간 연동을 위한 기술 표준화를 착수했다. 그리고 9개월 뒤 연동 시연에 성공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5세대(5G)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철 부회장은 행사 이틀째인 16일 오전 '5G로 가는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포스트 LTE 시대가 가야 할 방향으로 '미센트릭'(Me-Centric)'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KAI, 방위사업청 군수지원 계약

향후 5년 간 520억 규모


KT-1 기본훈련기 비행 모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기본훈련기 및 전술통제기 KT/A-1에 대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AI는 2020년 7월까지 향후 5년간 KT/A-1 항공기의 2762개 품목에 대한 수리부품 구매(2518종)와 정비업무(244종)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금액은 520억원 규모다.

사측에 따르면 PBL은 전문업체가 계약품목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계약이행 후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해 지급받는 MRO 계약 방식이다.

업체가 수리부속의 소요산정과 획득, 수송, 납품관리 등 제반 업무 일체를 전담해야하는 PBL은 축적된 제작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현재 PBL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KAI가 유일하다.

PBL은 항공기 가동률 향상뿐만 아니라 후속지원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 빠르게 해소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사청은 2010년 국내 최초로 KT/A-1 PBL을 시작한 후 무인정찰기 송골매, 전투기 FA-50 등으로 PBL 계약을 확대해 왔다.

방사청 측은 "1차 KT/A-1 PBL 사업 수행을 통해 효율성이 인정돼 이번 2차 계약에서 PBL 대상 품목을 2배 이상 확대(1차 1165종 → 2차 2762종)했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광주U대회 '휴먼스토리' 주인공에 장학금 전달

SK C&C 'SK행복장학' 시상



SK행복장학 프로그램 시상식 행사 이후 김경호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왼쪽 첫 번째), 박정호 SK C&C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 대한민국 사격의 김고운 선수(왼쪽 다섯 번째) 및 대회 관계자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 C&C 제공

SK C&C(대표이사 박정호)는 13일 광주 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동에서 'SK행복장학 프로그램'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상식에는 박정호 SK C&C 사장,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경호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수상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상자는 경기기록과 메달보다는 가난·재해·병마·장애 등의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휴먼스토리 주인공들로 특별상을 포함 총10명(1개팀 포함)이 선정됐다.

수상자 중에선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열정을 보여준 팰런 포르데(25·바베이도스), 할리모바 모흐루(20·여·타지키스탄), 팝 종가(17·감비아) 선수들이 선정됐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장비와 지원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국민 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참가했다는 산지프 라마(19·네팔), 마르캉송 알티도르(27·아이티)도 선정됐다.

부상과 병마를 극복하고 장애를 자신만의 장점으로까지 승화시켜 감동을 선사한 김고운(20·여·대한민국), 토마스 판데르 플레센(25·벨기에), 사이먼 케이폰(22·호주) 선수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수상자는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언론을 통해 소개된 감동 스토리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 네티즌 투표와 전문가 심사, 기자단 투표를 종합해 선정했다.

/정문경 기자

이마트, 광고뒷돈 20억 챙겨

특정 대행사에 광고 몰아줘
檢, 고위임원과 연계성 수사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대표 김해성·사진) 광고팀 직원들이 광고를 빌미로 수십억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위 임직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SBS는 이마트 소속 과장 2명이 매장 내 벽이나 카트에 부착하는 모든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게 몰아주는 대가로 7년간 2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김 모씨는 광고팀 소속이며 다른 한명은 법인영업팀 소속이다. 이들은 매달 적게는 4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뒷돈을 받아왔다. 김 씨의 상사인 장모 상무 역시 같은 대행사로부터 3억원의 돈을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이마트 감사팀에 자백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에 따르면 현재 2명의 이마트 직원을 구속 수사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현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검찰은 과장급 인사가 독단적으로 거액을 챙겼을 가능성은 적어 배후에 이러한 일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광고대행사는 이들의 광고 계약 대가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회사 매출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뒷돈을 받거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은 모두 엄중 징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지구 온난화에 열대과일 재배지 '위로위로'

애플망고·패션후르츠 등
경남·강원도 등에서 재배



지구 온난화로 열대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990년대 전국 평균기온은 12.5℃였으나 지난해 13.1℃까지 상승했다. 남해안과 전남 목포 등지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던 '애플망고'는 남해안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애플망고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 아열대성 과일이다.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2000년대 초 제주도에만 재배·출하됐으나 2010년에는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재배 가능해졌다. 올해는 3개 농가에서 8톤 가량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후르츠'와 '메론'의 재배지도 북상했다. 패션후르츠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됐으나 현재는 경북 김천, 구미와 충북 진천 등지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메론 역시 전라남도에서 강원도까지 북상했다.

생산량도 많아 메론의 경우 7, 8월에 438톤의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열대과일들은 국내에서 생산돼 대형마트로 공급된다. /minus@

편의점 도시락의 진화, 어디까지?

1인 가구 증가로 매출 급등
업계, 신제품 출시 봇물



1인 가구가 늘며 편의점 '도시락'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전체 가구의 9.0%를 차지했던 1인가구는 올해 27.1%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4분에 1에 달하는 수치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편의점 도시락의 매출 급등으로 이어졌다.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이 최근 3년간 도시락 매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4.2% 수준이었던 성장률은 지난달 22일 65.5%를 기록했다. 특히 저녁시간의 도시락 판매비중은 27.6%로 점심시간의 2.0%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 고객 잡기에 연일 진화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편의점에서 첫 도시락이 판매되며 '날씨 마케팅'을 도입한 세븐일레븐은 최근 도시락 매출의 72.6%가 남성 층 임을 감안, 연예인 도시락을 내놓았다.

3월 12일 걸스데이 혜리를 모델로 출시한 '혜리 도시락'은 출시와 동시에 판매 1·2위를 차지했다. '혜리 함박&치킨까스 도시락'·'찹스테이크 도시락'·'왕돈까스 도시락' 등 이달까지 총 8종을 출시했다. 13일에는 편의점 도시락 최고의 양을 자랑하는 '혜리 11찬 도시락 2종'을 내놨다.

GS25(대표 허승조)의 도시락 마케팅은 '싸고 많은'이다.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치즈함박&오므라이스'·'김혜자 떡갈비&닭갈비'·'김혜자 고등어조림도시락' 등을 포함한 총 6종의 도시락을 선보였다. 특히 '김혜자 도시락'은 가격대비 풍부한 양으로 호평받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양이 많고 값이 싼 음식을 '혜자'라고 부른다.

CU(대표 박재구)는 '영양'을 앞세웠다. 4월 9일 '국민밥상 2종'을 출시한 후 13일 '영양밥상 2종'까지 총 4종을 출시했다. '국민밥상 9찬'의 경우는 CU간편식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35년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34.3%까지 늘 전망인 가운데 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황우연 세븐일레븐 푸드팀장은 "현재의 일본 도시락 시장을 만든 1인가구, 워킹맘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통계와 소비 트랜드를 미루어 볼 때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s@

'과일맛 허니통통' 제2의 허니버티칩 될까?

해태, 연매출 1000억 전망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 허니통통 시리즈를 제2의 허니버터칩으로 만들기에 나섰다.

해태제과는 올해 1월 출시한 허니통통에 사과, 딸기 등 과일 맛을 접목한 '허니통통 과일맛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허니통통의 가격은 허니버터칩과 1500원으로 동일하지만 용량은 허니통통이 65g으로 허니버터칩보다 5g 많다.

감자를 원료로 하는 과자에 과일 맛을 적용한 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해태제과는 이를 통해 제2의 허니버터칩 인기를 재현하겠다는 목표다.

초반 소비자 반응은 좋다. 해태제과 자체 집계에 따르면 허니통통은 출시 첫 달인 지난 1월 38억원 매출을 올렸다. 지난 5월에는 월 매출 95억원, 6월에는 100억원을 기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동반성장펀드' 1000억원 규모로 확대

롯데홈쇼핑, 하반기부터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이달부터 중소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하반기부터 1000억원으로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협력업체는 전국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롯데홈쇼핑 동반성장펀드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월요병은 쇼핑으로?… 월요일이 매출 가장 많아

티몬, 요일별 매출 분석

고객들이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요일은 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티몬(대표 신현성)이 올해 상반기 매출을 요일 별로 분석한 결과 월요일이 매출이 1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요일 16.1%, 화요일 15.9%, 목요일 15.2%, 금요일 13.3%, 토요일 11.1% 등의 순이었다. 주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카테고리 별로는 월요일에는 육아용품·가전제품의 매출이 평균보다 5%높게 나타났다. 반면 식당과 에스테틱 등의 골목상권 쿠폰은 금요일에 매출비중(15.4%)이 가장 높았다. 공연·전시와 같은 커려 카테고리는 주말동안 35%의 매출을 보였다.



/minus@

롯데百, 파트너사에 初伏 수박 선물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13일 초복을 맞아 파트너사 500여 곳에 수박 1000통을 선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여름 정기 세일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파트너사에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월까지 매출이 2.3% 신장하다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 6월 한 달 4.5% 역신장세로 돌아섰다. 7월 정기세일에는 롯데백화점과 파트너사의 노력으로 3%대 신장률을 기록했다. /sweatsk@

총체적 난국 JTI코리아… 총파업 돌입 예고

부당해고·임금교섭중 비노조원 임금인상 회유 등
노조, 14일 사측과 마지막 협상 결렬시 총파업 돌입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대표 스티브 다이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경쟁사에 밀려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노조도 부당해고와 임금협상 등을 이유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 노사는 해고자 복직과 임금교섭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JTI코리아는 올해 10여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허위 보고와 입력코드 조작 등을 통해 허위매출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나간 담배와 매출이 맞지 않으면 부족한 돈을 영업사원이 본인 돈으로 채워 넣는 상황에서 사측이 억지 주장으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복직을 판결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 측이 사과는 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고자에게 개별로 접촉해 3개월 정직으로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 측이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비조합원은 임금을 인상하고 조합원은 동결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을 탄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3일 229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86%인 197명의 지지를 얻으며 파업수순에 돌입했다.



JTI코리아 노조가 부당해고와 임금협상 등을 이유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JTI코리아 본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10일에는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도 열었다.

노조는 14일 스티브 다이어 JTI코리아 대표와 마지막으로 협상을 벌인 뒤 결렬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담배협회에 따르면 1분기 JTI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6.6%이다.

뒤늦은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늘긴 했으나 3분기 보다는 0.2%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매출은 2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71억원에서 132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영현 JTI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14일 JTI코리아 대표와 마지막으로 협상을 벌인 뒤 결렬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전인지가 1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70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번쩍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전인지 '우승'에 하이트진로 '잭팟'

광고 효과 2000억 이상 분석
수출 등 실적 30% 상승 기대

여자 프로골프 선수 전인지의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메인 후원사인 하이트진로가 수천억 원의 광고효과를 얻게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 선수가 미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US여자오픈 제패로 하이트진로가 누리는 광고효과만 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김효주의 에비앙 대회 우승으로 2000억원의 광고 효과를 냈다. 15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에 성공한 전인지 선수는 'hite(하이트)' 브랜드명이 새겨진 파란색 티와 흰색 모자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인지의 우승은 향후 하이트의 브랜드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전인지 선수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전인지의 이번 우승으로 광고 효과는 물론 수출 등 실적이 최대 30%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21cindiun@

LG생건, 협력업체 구매대금 조기 지급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해 이달 구매대금 약 46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조기 지급 배경으로 "메르스로 인해 7월들어 물량이 감소한 210여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sj0215@

유통가 "체험단 운영이 소통의 연결고리"

대학생·주부 등 모집
SNS 채널 마케팅 강화

화장품·생활용품 업계가 체험단이나 대학생 마케터 모집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을 늘리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채널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제품을 내놓는 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체험단 운영이 제품 홍보는 물론 향후 구매로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코리아나는 매년 1회의 체험단 모집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3회 실시한다. 이미 지난 5월에 모집했던 4기 라비다 선술루션 서포터즈는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0명을 뽑는 이벤트에 4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이다. 코리아나는 올가을 메이크업 브랜드 텐세컨즈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서포터즈 모집을 두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올해는 SNS 홍보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횟수를 늘렸고 신청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대상 마케터 모집도 하고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몽드는 이달 26일까지 대학생 글로벌 마케터 블룸미 3기를 모집한다. 마케터 블룸미 3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에 참여, 한국과 중국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모델 박신혜의 출연 영화 시사회나 플라워 클래스와 같은 브랜드 자체 행사에 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생활용품 업계는 평소에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달 말까지 주부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이 벌써 23회 째다.

이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씩 모니터 요원을 뽑고 있다. 선발된 주부 모니터 요원은 제품에 대한 평가는 물론 신제품 아이디어와 제품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놓은 신제품이 '샤프란 꽃담초 섬유유연제'와 '테크 진드기 걱정 끝 액체세제'다. 샤프란 꽃담초 섬유유연제는 주부들이 빨래할 때 살균·냄새 제거를 목적으로 식초를 사용하는 것을 제품 콘셉트에 반영했다. 또 '테크 진드기 걱정 끝 액체세제'는 평소 집 먼지 진드기 사체·배설물로 인한 침구류나 의류 위생을 걱정하는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됐다.

/김수정 기자 ksj0215@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해외로 '승승장구'

할리스, 베트남 1호점 오픈
망고식스, 북경 등 MF체결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들이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대표 신상철)는 베트남 호치민시티 내 오피스 상권 지역인 응웬티민카이 거리에 '할리스커피 베트남 1호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2개 매장을 추가하고, 5년 이내에 40여개 매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망고식스(대표 강훈)도 지난 8일 현지 기업 북경망과희사찬음관리유한공사와 중국 북경, 천진, 하북성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MF)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해 5월 상해 MF로 시작해 중국에서만 아홉 번째 MF다.

엔제리너스커피도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제1의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메가알마아타몰에 1호점과 메가파크몰에 2호점을 동시에 오픈했다. 엔제리너스는 주요 쇼핑몰과 로드샵 매장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현지에 총 15개 매장을 출점할 계획이다.

/21cindiun@

‘스타우드 커리어 먼스’ 개최

W워커힐 등 3개 호텔
채용·커리어 개발 등


스타우드그룹 제공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가 신입사원 채용과 커리어 개발을 지원한다. 13일부터 31일까지 W 서울 워커힐 호텔·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쉐라톤 인천 호텔 등 국내 3개 호텔에서 ‘스타우드 커리어 먼스’를 개최한다.

2012년 중국에서 시작된 스타우드 리쿠르트먼트 데이는 2013년아시아지역전체로 확대돼 85개 지역에서약 200개의 호텔이 참가하는 행사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스타우드 커리어 데이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인재 채용과 직원의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올해에는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아시아태평양지역의 250개 이상의스타우드 호텔·리조트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각 참여 호텔들이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와 온라인 커리어 상담 등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직원의 커리어 성장·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호텔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통해 채용 컨설팅·이력서 작성 방법·면접 컨설팅 등 커리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성직원을 위한 커리어 프로그램 소개·스타우드의 여성 리더십 사례 등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스티븐 호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장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직원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었기에 스타우드는 세계적인 호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 3개 스타우드 호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인천재능대 ‘제1회 예비승무원 페스티벌’ 연다

18일, 전국 여고생들 대상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 항공운항서비스과는 오는 18일 전국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예비승무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후원으로 ‘항공객실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 있는 여고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예선 대회는 교복·단정한 면접 복장으로 머리는 포니테일·쪽머리·단발이어야 한다.

이어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5일에는 본선 대회가 진행된다.

또 페스티벌에서는 승무원 진로체험(항공기내체험·승무원 메이크업·워킹)과 재학생 멘토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재능대 항공서비스과는 지난 2010년 신설돼 (주)대한항공·(주)티웨이항공 승무원 등 수십명의 항공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 문의 : 032-890-7450

/hmbok@

강강술래 ‘주부·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신청글 추첨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20인분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이달 29일까지 제1기 ‘강강술래 주부·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각 매장별로 2~4인씩 총 18명을 선발해 내달 1일부터 일 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들은 매월 1회 정기 모임과 함께 메뉴·서비스 개선 및 신메뉴 제안, 매장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퍼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강강술래 기프트카드(10만원) 증정, 시즌메뉴·신메뉴 시식기회 제공, 모임 및 행사 시 교통비 및 식사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강강술래 매장 방문이 가능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및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sullai.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력보충 및 원기회복에 좋은 온 가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ml·10봉·20인분)를 증정한다.



사골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이나 바캉스 간편식으로도 좋다.

/21cindiun@

방통대, 한 해 장학금 수혜자 7만여명

지난해 전체인원 31% 혜택
후생복지도 추가 지원키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이동국)는 지난 2011년~2014년까지 장학금 수혜 인원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연간 평균 7만 여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14년 1·2학기 교내외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8만195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의 31%가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개 부문 교내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4만9186명(82억3629만6000원)으로 전체 등록생의 18%가 받았다.

이어 2학기부터는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수혜대상이 확대돼 기존 재학생만 신청 가능했던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신·편입생이나 재입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4급 장애인·만70세 이상·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학생후생복지 부문의 경우 120명을 추가로 지원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게 된다.

윤병준 학생처장은 “교내외장학금 제도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열려있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빛의소리희망기금’ 지원단체 선정

한미약품
장애아동 예술교육 지원
청록원 등 기존 지원 유지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와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장애아동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조성한 ‘빛의소리희망기금’의 지원단체를 선정했다.

MPO와 한미약품은 올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을 지난 1, 2회 지원단체였던 청록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속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빛의소리희망기금은 MPO와 한미약품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것. 올해에는 지난 2월 1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회 공연이 개최된 바 있다.

MPO와 한미약품은 예술교육 지원이라는 특성상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두 단체를 3년 연속 후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전북 익산)은 핸드벨 연주단 ‘블루엔젤스 콰이어’에 타악기 파트인 카혼을 추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원조 빅불 세트’ 먹고 비엔나 가자~

1등 16명 여행 상품 제공
4억원 상당 경품 이벤트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31일까지 원조빅불세트 구매 시 총 4억원 상당의 경품이 포함된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조빅불은 1992년 국내에 처음으로 롯데리아가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 선보인 최초의 불고기버거를 강조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9월 출시 후 70일 만에 40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리아는 불고기버거의 원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품 스크래치 카드 경품을 진행한다.

이벤트 당첨자 1등 16명에게는 30일 개봉 예정인 영화 ‘미션 임파서블’ 촬영지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 상품(300만원 상당)을 제공하며 2등과 3등 100명과 150명에게는 미션 임파서블 오리지널 경품 스파이 카메라 시계와 스파이 펜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4등 1000명에게는 미션 임파서블 예매권을, 5등 5000명에게는 롯데리아 강정버거 1+1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롯데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otteria)에서도 원조빅불 세트 구매시 경품 이벤트를 함께 연다. 페이스북에 빅불 세트 3개를 구매한 영수증을 업로드한 고객 대상 100명에게 ‘드론 헬리캠’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21cindiun@

star bag

2년 만에 신곡 발표



가수 **이기찬**이 2년 만에 신곡 '뷰티풀 투나잇(Beautiful Tonight)'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FE엔터테인먼트가 13일 전했다.

디지털 싱글로 발표되는 이번 앨범에는자작곡인 타이틀곡 '뷰티풀 투나잇'과 '악담' 등 2곡이 수록됐다. 이기찬은 방송과 공연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에이핑크와 맞대결

걸그룹 **여자친구**가 오는 23일 두 번째 미니 앨범 '플라워 버드(FLOWER BUD)'로 컴백한다.

에이핑크와 같은 날 컴백해 청순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소속사 측은 "소녀의 수줍은 고백을 담은 곡으로 여자친구 특유의 생기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라고 전했다.



당당한 여성의 섹시미

걸그룹 **헬로비너스**가 신곡 '난 예술이야'로 당당한 여성의 섹시미를 선보인다.

소속사 판타지오 뮤직은 13일 "헬로비너스의 '난 예술이야'는 제목답게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의 섹시한 매력을 표현한 섬머송"이라며 "음악은 물론 비주얼, 퍼포먼스에서도 성숙해진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다니엘 헤니와 한솥밥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2'(이하 '위탄2') 준우승자 **배수정**이 다니엘 헤니, 수현 등이 속한 에코글로벌그룹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4년 만에 가수로 데뷔한다.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배수정의 신곡은 직접 작사, 작곡한 R&B 발라드 곡이다.

예능 인기 감사… 그래도 내 기본은 배우

영화 '쓰리 썸머 나잇' 임원희



임원희(44)가 오랜만에 정통 코미디 영화로 스크린에 돌아왔다. 오는 15일 개봉하는 '쓰리 썸머 나잇'(감독 김상진)이다. 영화는 일탈을 꿈꾸며 부산 해운대를 찾은 세 친구의 예상치 못한 소동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임원희는 세 친구 중 엉뚱하다면 가장 엉뚱할 달수 역을 맡았다. 비정규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객의 '갑질'에 늘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런 달수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걸그룹이다. 한 손에 캠코더를 들고 걸그룹을 쫓아 다니는 달수의 모습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준다.

영화는 캐스팅 조합부터 코미디답다. 임원희와 열 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김동욱과 손호준이 동갑내기 친구들로 나오기 때문이다. 영화에 가장 먼저 캐스팅된 임원희에게 다른 두 배우의 캐스팅 소식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다.



김상진 감독에게 "제가 부담스러우면 영화에서 빠지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상진 감독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노'였다. "나이가 짐작이 안 가는 얼굴이니 괜찮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

임원희는 달수를 '영화적으로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찌질하고 민폐인 캐릭터죠. 하지만 세 친구 중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다시 처음

정통 코미디로 스크린 복귀
김동욱·손호준과 친구 연기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

"드라마든 영화든 상관없이 꾸준히 작품 하는 게 바람"

으로 돌아가 역할을 고르라고 해도 저는 달수를 선택할 거예요."

캠코더를 들고 걸그룹을 쫓아다니는 모습에서는 언뜻 일본의 오타쿠 캐릭터가 연상된다. 그러나 임원희는 "오타쿠의 모습을 빌려오기보다는 시나리오 속 달수에 집중하며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임원희에게 영화 속 세 친구 중 자신의 성격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잠시 골똘히 생각하던 임원희는 세 친구 중 그나마 차분한 성격인 명석을 꼽았다. 다만 "대장처럼 나서는 것만 빼고"라는 단서를 달고 말이다. 그의 말처럼 임원희는 인터뷰 내내 영화와 달리 진중했다. 그 진중함 속에는 연기에 대한 고민이 가득 있었다.

최근 임원희는 '정글의 법칙' '나는 남자다' '진짜 사나이'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며 "예능으로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게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며 "나의 베이스는 배우다. 그래서 적당한 선은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예술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임원희는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지금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배우로서 그의 목표는 지금처럼 대중과 꾸준히 만나는 것이다.

"꾸준히 작품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큰 행복도 없거든요. 물론 흥행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제 바람은 영화든 드라마든 배우로서 정체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나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제 바람입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전주리)

시원한 영화관서 즐기는 걸작 오페라

메가박스 '메리 위도우' '일 트로바토레' 상영

한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서 걸작 오페라 두 편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는 메트오페라 '메리 위도우'와 2014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일 트로바토레'를 상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리 위도우'는 남편의 죽음으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폰테베드로의 미망인 한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나가 파리 사교계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수많은 남성들이 구애를 시작한다. 그녀가 파리인과 결혼할 경우 막대한 상속금이 프랑스로 유출될 것을 염려한 폰테베드로 정부는 한나를 폰테베드로 사람인 다닐로 백작과 결혼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친다. 1905년 초연 이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빈 오페라타 걸작이다. 18일 개봉.




오페라 '메리 위도우'와 '일 트로바토레'.

베르디 3대 오페라 걸작 중 하나인 '일 트로바토레'는 집시 여인 아주체나의 이야기다. 아주체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귀족에게 복수하려고 그의 둘째 아들 가르시아를 납치해 죽이려다 실수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 결국 그녀는 가르시아를 만리코라고 이름 붙여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 귀족의 첫째 아들은 루나 백작이 되고, 만리코는 성장해 그의 여자 레오노라를 사랑하게 된다. 슈퍼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아주체나 역을, 세계 3대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가 루나 백작 역을 맡았다. 25일 개봉.

/김민준 기자 mjkim@

영화 '이클립스'로 뭉친 차세대 ★

최태준·김시후·문가영 캐스팅… 내달 크랭크인

배우 최태준, 김시후, 문가영 등 차세대 스타들이 영화 '이클립스'(가제, 감독 정희성)에 캐스팅됐다.

'이클립스'는 어느 고등학교에 전학온 윤재가 이 학교 학생인 세준과 어울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최태준은 극을 이끄는 윤재 역을 맡았다. 2001년 드라마 '피아노'에서 조인성 아역으로 데뷔한 최태준은 2013년 '못난이 주의보'로 아역배우 이미지를 탈피하고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다. 현재는 KBS2 새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에 캐스팅됐다.

'친절한 금자씨' '써니' '마이웨이' 등에서 활약했던 김시후는 내면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최태준 김시후 문가영

한 인물 세준 역으로 출연한다. 극의 긴장감을 이끄는 캐릭터다. 두 사람의 후배이자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은영 역은 최근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에 출연했던 문가영이 맡아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연출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경력을 지닌 정희성 감독이 맡는다. '리턴' '아이들' 등을 연출한 이규만 감독이 제작한다. '이클립스'는 내달 3일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뮤지컬계 색다른 홍보 눈길

'수퍼스타' 음원사이트와 첫 콜라보… '데스노트' SNS·유튜브 등 활용

뮤지컬 홍보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거리 게시판이나 현수막을 활용한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SNS를 활용하거나 음원사이트와 협약을 맺는 등 20~30대 주요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 홍보가 눈길을 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이하 수퍼스타)'는 지난 10일 음악서비스 밀크와 함께 '수퍼스타x밀크 스페셜 페이지'(작은 사진)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밀크는 삼성전자의 뮤직라디오형 음악서비스로 각 장르의 전문가들이 큐레이션한 200여 개의 다양한 스테이션을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의 음악들을 가격, 선곡 고민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뮤지컬과의 컬래버레이션은 '수퍼스타'가 처음이다.







뮤지컬 '수퍼스타'는 밀크를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음원을 선공개한다. 배우의 사진과 작품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매주 시리즈로 공개할 계획이다.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는 작품도 많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최근 공식 SNS와 유튜브를 개정하고 이곳에 공연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거나 주요 배역들의 연기와 가창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등을 내보내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뮤지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홍보 방법이 다양해졌다"며 "뮤지컬 주요 관객 층이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홍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가창력 경합의 승자는 누구?

◆JTBC '백인백곡-끝까지간다' 오후 9시 40분



아주 특별한 100인의 선곡단과 6팀의 초특급 게스트가 출동한다. 쭉 뻗은 다리만큼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김현정, 돌아온 감성 보컬 'R&B계의 어린 왕자' 이기찬, 믿고 듣는 명품 보컬 포맨, 데뷔 8년 만에 홀로서기에 나선 주희, 노래 잘하는 개그우먼에서 진짜 가수가 된 신보라, 재야의 숨은 보석 은가은이 경합을 벌인다. 세계여행 티켓을 놓고 행운을 거머쥘 최후의 승자가 밝혀진다.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심형탁은 소개팅으로 만났던 보영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유원지 데이트를 즐기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굳힌 심형탁은 미리 준비해놓은 꽃다발과 함께 자리를 마련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병이 되는 살에 대해 알아본다. 올 여름 건강을 책임질 '병살' 극복의 비밀이 바로 '숨'에 있다. 중년 이후 '병살'을 없애기 위한 제대로 된 호흡을 공개한다.



◆ TV조선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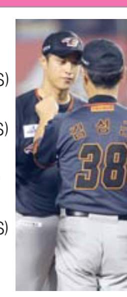
모전여전 모녀 스타 특집으로 꾸며진다. 배우 견미리의 첫째 딸이자 떠오르는 청춘스타 이유비와 그에 못지 않은 청순미를 지닌 둘째 딸이 공개된다. /정리=하희철 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1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폐막식	50 오늘부터 사랑해 (71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2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6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4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세계문화유산 등재 특집 <문화유산 코리아>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8회)	00 화정 (28회)	00 상류사회 (12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쉰들러 리스트>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자막방송 55 뮤비뱅크 2 (4회)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5회) (재)	10 집밥 백선생 (8회) (재)	30 2015 테이스티로드 (3회)	30 와일드 순간포착(2) (13회)	10 무비스토커 (1회)	◆ 프로야구 kt vs 두산 (SKY SPORTS) LG vs KIA (SBS SPORTS) 롯데 vs 한화 (MBC SPORT) SK vs NC (KBS N SPORTS) 넥센 vs 삼성 (SPOTV+)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글로벌 특집 (4회)	40 오늘 뭐 먹지? (23·79회)	00 태양계의 탄생	30 의뢰인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7회)	30 유미의 방 (3회)	00 우주 여행 가이드 명왕성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5회)	40 집밥 백선생 (9회)	00 올리브쇼 2015 (5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10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35·52회)	00 미션 플루토: 명왕성을 향하여	00 마더스 데이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2회)	00 신분을 숨겨라 (10회)	00 올리브쇼 2015 (25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 복수의 미사일, V1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5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7회) (재)	00 유미의 방 (2·3회)	00 동물을 해부하라! 기린	10 내 연애의 기억	



전인지 "경기 즐기려 노력… 좋은 결과 나와"

US여자오픈 우승… 韓·美·日 3개국 석권
"한국서 2개 대회·브리티시오픈 출전 계획"



13일 끝난 제70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전인지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인지(22)가 한국, 일본 골프 무대 평정에 이어 처음 출전한 미국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전인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제70회 US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를 치며 합계 8언더파 272타로 선두를 달리던 양희영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천리투게더오픈,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대회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했다. 이어 두달여 만에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한·미·일 무대를 평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인지는 경기 후 "즐겁게 경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직 우승이 실감 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캐디 딘 허든과 즐겁게 플레이했다면서 "서희경 언니가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계약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우승으로 미국 무대 진출권을 획득한 그는 "LPGA 무대가 꿈이긴 하지만 진출 시기는 부모, 코치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코스에 대해서는 "코스가 길었고 러프도 길었다. 페어웨이 놓치면 어렵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대회 기간에 샷 감각이 좋았는데 샷 미스를 하지 않은 게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전인지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한국에 돌아가서 2개 대회 참가한다. 그리고 브리티시오픈에도 출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축제 화려한 피날레

광주U대회 오늘 폐회식
샤이니·EXID 등 총출동



12일 오후 광주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 세계청년축제 폐막공연에서 가수 싸이(PSY)가 공연하고 있다.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 제공

세계 청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14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감한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오후 7시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갖는다. 폐회식 주제는 'Sharing the Light (창조와 미래의 빛, 세상과 소통하다)'다. 참가 선수들과 대회 기간 곳곳에서 땀 흘린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흥을 발산하는 난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직위는 "2013 카잔U대회에서는 개·폐회식 제작비로 약 1200억원을 소비했는데 이번에 101억원의 제작비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회식은 환영행사에 이어 공식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환영행사에서는 응원연합 치어쇼와 함께 대회 운영의 핵심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이 입장하고 영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이 펼쳐지며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

특히 개회식에서 관심을 모았던 디제잉에 맞춰 참가 선수들이 입장하고 관악 퍼포먼스와 깃발 퍼포먼스, 12일간의 대회 기록영상 상영이 이어지며 12일간의 열전에 박수를 보낸다.

FISU 회장이 폐회사를 낭독하고 대회기는 차기 개최도시 시장에게 전달된다. 차기 하계U대회 개최도시 대만 타이페이는 문화공연을 통해 차기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축하공연은 샤이니, EXID, 김경호 밴드, 지누션, 울랄라세션, 딕펑스 등 K-POP 가수들이 중심이 되는 콘서트와 함께 전통놀이인 쥐불놀이 퍼포먼스와 DJ Koo의 연주 속 레이저, 불꽃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쇼로 진행된다.

피날레는 국악인 남상일, 재즈보컬리스트 말로, 뮤지컬 디바 최정원·김소현이 만든 '4색의 빛고을 아리랑'이 장식하며, 세계 젊은이들에게 남도의 흥과 가락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강정호, 연장 10회말 '안타+결승 득점'

추신수, 무안타 침묵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결승득점을 올렸다.

강정호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피츠버그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로 이겼다.

정규이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강정호는 4-5로 뒤지던 연장 10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중전 안타를 쳐냈다. 강정호의 안타로 2사 1, 2루가 된 피츠버그는 후속타자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의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이 됐다. 이어 대타 트레비스 이시카와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만루가 됐고, 후속타자 그레고리 폴랑코의 우전 안타로 강정호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67에서 0.268로 조금 올랐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로써 추신수는 타율 0.221(307타수 68안타), 홈런 11개, 38타점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텍사스는 1-2로 패했다. /김민준 기자

윤성효 부산 감독, 성적 부진으로 사퇴



성적 부진에 시달린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윤성효(사진) 감독이 전격 사퇴했다.

부산은 "윤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 감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윤 감독은 2012년 12월 수원 삼성 지휘봉을 내려놓고 부산 사령탑에 오른 후 2013년 계약연장을 통해 올해 말까지 부산을 이끌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이번 시즌 4승 5무 13패로 K리그 클래식 12개 팀 중 11위에 그치는 부진에 빠졌다. 최근 8경기에서는 3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후임 감독 선임 전까지는 데니스 코치가 사령탑을 맡아 감독 대행체제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NC 트리오 vs 이승엽

올스타 홈런레이스 펼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클린업 트리오 나성범(26), 이호준(39), 에릭 테임즈(29)와 '국민타자'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 등이 2015 KBO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 나선다.

KBO는 올스타전 행사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1군 올스타전 하루 전인 17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홈런레이스에는 드림 올스타 대표로 이승엽, 야마이코 나바로(이상 삼성), 김현수(두산 베어스), 황재균(롯데 자이언츠)이 나서며 나눔 올스타에서는 나성범, 이호준, 테임즈(이상 NC), 박용택(LG 트윈스)이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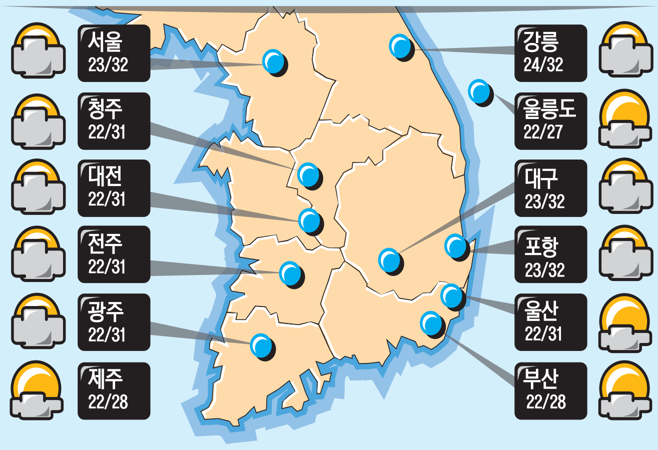
17일 열리는 퍼펙트 피처 대결에는 드림 올스타의 임창용, 안지만(이상 삼성), 정우람(SK 와이번스), 유희관(두산)과 나눔 올스타의 조상우(넥센 히어로즈), 헨리 소사(LG), 해커(NC), 윤석민(KIA 타이거즈)이 참가한다.

/김민준 기자

날씨

7/14 화 일출시각 05:21 일몰시각 19:5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1		
	9		1		7			2
	8	7	9				2	6
	3		6					
	1	9	2				8	3
	6		7		1			4
			4	8		6		
		1						

						4		
1							6	
6	7	8		9				3
7		9		8	2			
	2		3		5	6		
		5		1				
			1		4	9		
	3			6		1		
					3	7	8	

스도쿠 정답

1	4	5	8	9	2	3	6	7
7	2	6	3	4	5	1	9	8
8	9	3	1	6	7	5	4	2
5	8	7	9	1	3	4	2	6
2	3	4	6	7	8	9	1	5
6	1	9	2	5	4	7	8	3
9	6	8	7	3	1	2	5	4
3	5	2	4	8	9	6	7	1
4	7	1	5	2	6	8	3	9

2	9	3	8	5	6	4	7	1
1	5	4	2	3	7	8	6	9
6	7	8	4	9	1	5	2	3
7	4	9	6	8	2	3	1	5
8	2	1	3	4	5	6	9	7
3	6	5	7	1	9	2	4	8
5	8	2	1	7	4	9	3	6
4	3	7	9	6	8	1	5	2
9	1	6	5	2	3	7	8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Agreement to National Pension And Samsung Merging? Unconfirmed Report Increases Confusion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미확인 보도에 혼란 가중>

Unconfirmed report is being spread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Headquarter has agreed to the merging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Fabric. But in the National Pension side is not taking any actions to make any confirmation for the past four days. Samsung has stated that they will reveal their stance in the general meeting which is on the 17th. One of the stock firms has stated that it is wrong for the National Fund to cause all the trouble and not do anything about it, while other foreign investors are being stimulated because of the government's stance toward Samsung management structure.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분수령이 될 내부 투자위원회를 10일 오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PAGODA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막상 국민연금 측은 사흘째 가타부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17일 삼성 주총 장에서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는 입장만 되뇌고 있다는 전언이다.

13일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불 질러 놓고 구경하는 황당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삼성 지배구조 하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외국계 투자자를 자극하는 결과만 낳은 건 아닌 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과 별거중인데 건강과 직장이 걱정입니다
독신으로 지내긴 힘들어… 사주학 연구하면 도움

돌싱녀 여자 66년 양력 10월 26일 오후2시경

Q 선생님 안녕하세요. 메트로 신문을 즐겁게 보고 있는 독자 입니다. 지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 올리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50세 된 여성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남편과 별거 하고 있으며 지금은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알바나 임시직으로 호구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절에 가서 마음을 달래고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자신이 없고 맨날 임시직으로 눈치봐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앞으로의 장래와 직업 삶의 길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돌싱녀님은 토(土)의 기운인 무토(戊土)일간이 10월에 태어났는데 사주팔자 중에 화기(火氣)를 강하게 띠고 있어 한습한 기운이 없는 즉 남자의 복이 없는 사주입니다. 화산(火山)의 형상인데 생일지(生日支)에 칼(刃)을 두었으니 유아독존 격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특히 불사(佛事)에 관심이 많고 고독하며 그래서 신앙과 연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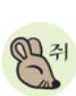
늘 불안정한 기운이 서려있고 음양살(陰陽殺)이 있어 용모가 아름다워 이성으로부터 유혹이 많은데 미남 남편과 연을 맺게 되며 고서(古書)에 보면 이러한 사주의 특성이 색정이 강해 이성에 따른 구설수가 많은데 성욕이 강하여 독신으로 지내기는 힘이 들고 뭇 남성과 음사(淫事)를 즐긴다고 했으므로 이런 점을 참고하여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풀이한 것을 적어 보았으니 달리 생각하지는 마시고 사주학을 연구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주 학을 하며 발효식품에 대해 연구를 하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점 수기(水氣)가 없으니 금전적으로 돈, 돈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주를 공부하면 지혜가 발현되고 상황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점으로 여걸의 기상으로 언변이 능숙하고 수단이 능란하니 운세가 형성되면 활동력은 넓어지게 됩니다. 과음 편식하는 경우가 많고 위장과 당뇨, 자궁질환을 주의 하시고 항상 모든 사람이나 자연에 만물이 현재 존재해 있는 것을 보면 제 나름대로 특징과 남보다 다른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생활하는데 도구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경우도 자신만의 일상에서 남보다 특출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수고스러움이 덜 들게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14일 (음 5월 2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60년생** 일처리를 확실히 하세요. **72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84년생**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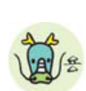
49년생 가족들의 불만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61년생**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73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85년생** 오늘 여행은 너무나 길합니다.



50년생 미래를 생각해 일을 추진하세요. **62년생** 매사에 힘을 비축하세요. **74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분수를 알아야 흉함을 면합니다.



5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63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습니다. **87년생**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52년생 이성과 지혜를 모아 행동해야 합니다. **64년생** 현상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 보세요. **88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누구에게나 정직해야 합니다. **65년생** 놀자는 생각이 들겠지만 참아야합니다. **77년생** 헛된 행동은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89년생** 사업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4년생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정당한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승진할 수 있는 운이 좋습니다. **90년생** 뜻밖의 이성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55년생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7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91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소원이 성취 됩니다. **68년생** 절실한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0년생**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92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7년생 적당한 일처리는 화를 부릅니다. **69년생** 성직자의 길로 가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1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93년생**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옵니다.



58년생 섣불리 행동하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70년생**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길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94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것입니다.



59년생 능력을 알아줄 귀인을 만납니다. **71년생** 금전 문제로 갈등을 할것입니다. **83년생** 침착하게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경비절감·성적 '세 토끼 잡은' 광주U대회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4일 피날레 무대를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친다.

이번 광주U대회는 시작 전부터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며 역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우선 대회 개최 비용을 최소화했다. 당초 4683억원이던 시설비를 3338억원으로 낮춰 1345억원을 절감했다. 운영비도 3488억원에서 654억원이 절감된 2843억원에 맞췄다.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기장과 훈련장 등 총 69곳의 시설 중 새로 지은 것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국제양궁장 뿐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시상대 등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썼던 것을 재활용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일회성 꽃다발 대신 기념할 수 있는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 인형을 줬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이 경기장 건설에만 1조7000억원을 쏟아부으며 대회가 끝난 뒤 인천시가 적자에 허덕이던 것과 대조된다.

메르스에 대한 우려를 털어버린 것도 고무적이다. 대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여자 리듬체조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 등 일부 선수가 대회 불참을 통보하고, 참가 선수들도 마스크를 하며 막연한 경계심과 찜찜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폐막을 앞둔 현재 대부분 선수들은 메르스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수촌 환경이 좋았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는 조직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환경에 신경을 쓰고, 선수들 발열 관리와 국내 메르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선수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각국 선수들은 대회가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이 전혀 메르스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파할 것이다. 국내에 외국 관광객이 다시 붐비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금메달 25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했던 한국은 이미 역대 최다인 46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으며 중국을 2위로 밀어내고 사상 첫 하계유니버시아드 종합 1위를 확정지었다. 한국이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 한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렸던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 번째다.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 8개의 금메달을 수확했고, 배드민턴은 금메달 6개를 싹쓸이했다. 유도와 사격에서도 각각 8개와 6개를 보탰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은 내년 올림픽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요란'만 했던 신세계 면세점 홍보



기자 수첩
박 상 길
<생활유통부 기자>

재벌 오너들간 자존심 대결을 벌였던 면세점 대전이 끝났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낙찰 결과였지만 황금티켓 한장의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의 탈락에 대해선 업계에서 뒷말이 많다.

탈락한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탈락해서 슬픈 것보다 신세계 탈락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할 정도다.

신세계의 면세점 탈락은 다른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겠지만 무엇보다 홍보전략 실패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타 경쟁 재벌들이 조용한 홍보 전략을 펼친 것과 달리 신세계는 유독 '요란한' 홍보로 업계의 눈총을 샀다.

신규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회현동 본점 본관은 '국내 1호 백화점'으로 포장돼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민족자본으로 세운 첫 번째 백화점은 1932년 서울 종로 2가에 문을 연 화신백화점이다.

남대문시장을 등에 업고 '상생'을 강조한 홍보도 입방아에 올랐다.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중구청과 남대문시장을 살리기 위한 MOU(양해각서)만 두 번씩이나 체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신세계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그나마 없는 손님을 다 뺏어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면세점 심사 직전 발표한 국판 트레비 분수 조성도 실상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신세계는 면세점을 과대 포장한 홍보에 치중만 했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주차 공간에 대한 홍보에는 미온적이었다. 차량 정체가 심한 명동 상권에 면세점 부지를 낙점했으면서도 뚜렷한 주차 방안은 알리지 못했다.

신세계 홍보실은 과장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들을 비난하기까지 하며 업계의 공분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가만있으려고 하는데 신세계가 자꾸 디스를 해 더 이상 못참겠다"며 토로할 정도였다.

'윤리경영'을 표방한 신세계의 홍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담당자들은 곰곰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인 사

■ 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우철
■ 국립현대미술관
◇전보 <과장급>△기획운영단 교육문화과장 학예연구관 강수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직인사 △미래전략본부장 김성식 △글로벌협력실장 성정곤 △건설인증센터장 정한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장 태용호
■ 인천시
△2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이일희 △2급 직무대리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직무대리 김진용 △2급 전입 ▲인사과 이부현 △2급 공로연수 ▲조동암 △3급 승진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장 허영수 ▲수도권교통본부장 김복기 △3급 직무대리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박명성 ▲경제산업국장 직무대리 이주호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이종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신동명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정재덕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직무대리 박병근 △3급 부단체장 전출 ▲남동구 한태일 ▲남구 한길자 △3급 전보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인사과 김성수 ▲인사과 조영하 △3급 파견복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 ▲문화예술과 김장근 △3급 공로연수 ▲강상석 ▲전영옥 ▲류치현 △4급 부단체장 전출 ▲강화군 김순호 ▲옹진군 이형균
■ 특허청
◇전보 <부이사관>△심판정책과장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형식 <과장급>△특허심사기획과장 박종주 △국토환경심사과장 이석범 △전력기술심사과장 김종화 △특허심판원 심판관 신용주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신규임용 △경영지원본부장 이수원
■ 한국동서발전
◇승진 <1직급(갑)>△안전품질처장 김상철 △국내사업실장 이성렬 △당진화력본부 제1발전처장 김병곤 △신당진건설본부 건설처장 박상준 <1직급(을)>△기획전략처 재무예산팀장 조창섭 △건설기술처 기술총괄팀장 이영찬 △당진화력본부 연료자재팀장 정진섭 △당진화력본부 화공기술팀장 김용화 △일산화력본부 기계팀장 김정재 ◇전보 △건설기술처장 박상준 △신당진건설본부 건설처장 이승현 △발전처 전원개발센터장 이영찬 △당진화력본부 제2발전처장 조동학 △동해바이오화력본부장 박윤옥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발전운영실장 김정재 △일산화력본부 발전운영실장 손영직

社說

'채용 늘리기' 운동이라도 해야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월간 실업자 규모가 4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10명 가운데 1명은 6개월 넘도록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해진 통계청발 보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5월말 현재 9만9000명으로 2007년 9월(10만3000명) 이래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59.6%(3만7천명) 늘어난 것이다. 또 5월 실업자는 102만2000명으로 지난 2월 이후 넉 달째 100만명을 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적어도 고용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0년대말~2000년대 초와 비슷해 보인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실업문제를 다 함께 힘모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감대도 별로 없다. 실업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지금 오히려 더 클 듯하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실업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우선 정부가 가용예산을 최대한 동원해 실업자를 흡수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1998년 진행됐던 '숲가꾸기 운동'같은 것을 다시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채용늘리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 1명이라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긴 시각으로 본다면 채용된 근로자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소비를 하니 내수가 늘어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환수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할 때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활 법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앞둔 시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시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며,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까. 이 경우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근무한 일자만큼 계산)하면 된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홍원 기자 hong@



동탄2신도시 A23·A31블럭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2,034세대 분양!

모델하우스 개관중!

- 경부고속도로, KTX·GTX동탄역(예정) 등 쾌속교통
- 지구내 초·중·고교 등 최적의 교육환경
- 상업, 문화, 레저, 의료시설 등 편리한 생활환경
- 무봉산, 치동천, 근린공원 등 청정 자연환경
- 인근 커뮤니티 시범단지의 인프라 공유

공급일정(2개 블럭 동시 청약가능)

블럭	7월20일(월)	7월21일(화)	7월22일(수)	7월23일(목)
A23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A31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모델하우스 : 경기도 화성시 능동 640-4번지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입니다.

동탄2신도시 A23블럭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2지구 A23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2~25층 18개동 1,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자금관리 : 시행사 자체관리 • 시행 및 시공 : (주)부영주택 동탄2신도시 A31블럭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2지구 A31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1~15층 13개동 7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자금관리 : 시행사 자체관리 • 시행 및 시공 : (주)부영주택

A23블럭 60㎡ / 84㎡ 총 1,316세대 A31블럭 84㎡ / 85㎡/ 147㎡ 총 718세대 총 2,034세대

동탄 모델하우스 031)898-6034~6